

世界經濟秩序의 轉換과 現代經濟學에 대한 反省

趙 淳*

……………<目 次>……………	
I. 序 言	1. 個人主義와 自由競爭
II. 새로운 經濟問題	2. 論理의 精密과 現實性의 缺如
1. 스테그플레이션	3. 新新古典派와 成長에 대한 過剩期待
2. 經濟成長의 內容	4. 制度와 歷史
3. 所得分配와 貧困	5. 所得分配理論의 限界와 現狀維持의 性向
4. 後進國의 問題	IV. 結 語
III. 經濟學의 反省	

I. 序 言

지난 60年代에 있어서는 世界經濟 특히 先進資本主義經濟는 이른 바 「黃金時代」⁽¹⁾를 演出하는 것 같이 보였다. 實質生産, 貿易, 投資, 消費 등의 指標들은 世界經濟가 다시는 逸脫할 수 없는 順坦한 街道를 달리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黃金時代의 出現을 보게 된 데 있어서는 經濟學의 貢獻이 至大한 것으로 認識되었다. 經濟學에 대한 一般의 信任은 크게 向上되었고 經濟學의 領域도 急速히 擴大되었다. 이리하여, 經濟理論은 不斷히 그 分析의 對象을 넓혀서 國防, 教育, 保健, 犯罪, 社會保障, 都市計劃, 公害 등등의 여러 分野에 걸쳐서 學的業績이 蓄積되어, 經濟理論의 眞理는 用之不竭의 普遍性을 자랑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黃金時代는 急速히 褪色하고 黃金時代가 謳歌되는 동안에는 거의 意識되지 못하였던 여러가지 難題들이 接踵하여 일어났다. 이들 問題들을 의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經濟學 및 그 隣接科學에 負荷된 任務라는 것은 새삼 強調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社會科學의 女王으로 그 論理의 精緻를 자랑하는 經濟學도 이들 問題

*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教授

(1) 「黃金時代」(Golden Age)란 「로빈슨」(J. Robinson)女史가 創始한 語彙로서 技術進歩가 中立의이고,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며 競爭에 카니즘이 自由롭게 作用하며, 人口가 一定率로 成長하며 資本蓄積이 모든 勞動을 雇傭할 수 있도록 充分히 이루어지며, 利潤率이 一定하고 實質賃金이 1人當生産의 增加와 같은 率로 增加하는 太平스러운 狀態를 말한다. [20, p. 99; 21, pp. 52-53]

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있어 意外로 無力하다는 疑懼의 소리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經濟學의 成功이 喧傳되는 當時의 喝采는, 이제는 그 無力에 대한 嘲笑과 詬難의 소리로 突變한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經濟理論은 과연 위에서 말한 用之不竭의 眞理를 가지고 있는가? 그 理論의 特性은 무엇이며, 變貌하는 世界에 適用되기 어려운 側面은 없을 것인가? 經濟學徒들은 지난날에 흔히 지녔던 安逸한 태도를 버리고 이들 문제에 대하여 다시 基本的인 檢討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最近 擡頭된 새로운 經濟問題가 어떠한 것인가, 이들 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經濟理論의 無力은 어디로부터 淵源하는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視野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하여 概括的으로 考察함에 있다. 이들 問題에 대하여 透徹한 眼識을 갖춘다는 것은, 經濟理論뿐 아니라, 政治와 社會, 그리고 歷史와 哲學에 대하여 通達한 후가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明白히 筆者의 能力을 크게 凌駕하는 것이므로 本稿에서 指摘하고자 하는 몇가지 事項들은 대부분 언젠가 이미 大家들에 의하여 論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筆者의 管見이 나타난 部分이 있다면 이는 오직 叙述의 方法이나 取舍의 選擇, 그리고 力點의 強弱 등의 枝葉的인 事項에 있을 따름일 것이다.

II. 새로운 經濟問題

經濟理論에 대한 새로운 挑戰으로 登場한 難題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몇가지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들 問題들은 전에도 있었던 것들이며 모두가 最近에 새로 擡頭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전부터 있던 問題들이라 하더라도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그 重要性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들 問題에 대하여는 새로운 角度에서 새로운 解決策이 探索되어야 할 것이다.

1.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즉 物價上昇과 生産의 沈滯가 同時에 惹起되는 現象은 50年代 後半期부터 歐美經濟에 間歇的으로 그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本格化하였다. 특히 73年 이후에는 石油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資源의 價格의 昂騰으로 만미암아 더욱 苛烈化되자, 이 現象은 마치 전혀 새로운, 따라서 既存經濟理論으로서는 도저히 分析될 수 없는 現象인 것처럼 認識되었다. 물론,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資源의

價格의 上昇에 의하여 크게 苛烈化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資源의 價格의 上昇이 없다고 하더라도 60年代의 世界經濟의 過熱로 보아 언젠가는 失業과 인플레이가 併進하는 事態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豫想될 수 있는 문제였다.

美國의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戰後의 새로운 景氣變動의 一局面으로 把握하여 그 原因을 景氣回復期에 일어나는 「需要牽引型 인플레이」에 찾고자 하였으며, 大體的으로 옳은 理論이 아닌가 생각된다. [16] 이 理論을 貨幣理論의 觀點에서 數衍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需要牽引型 인플레이」(demand-pull inflation)가 相當期間동안 進行하여 「豫想되지 않던」(unexpected) 인플레이가 「豫想되는」(expected)인플레이로 變化하여 이것이 進行하는 過程에서 生産要素의 價格 특히 勞賃이 物價上昇率과 같은 率, 또는 그 以上の 率로 上昇하여 이것이 企業의 豫想收益率을 減少시켜서 인플레이와 失業의 增加가 동시에 일어나는 現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物價는 一時에 上昇하는 것이 아니라, 一群이 上昇하면 또 다른 一群이 그 뒤를 따르는 등 相承繼起하는 까닭에 失業의 增加가 있어도 物價의 上昇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은 現代經濟의 一面이라 할 것이다.

이와 類似한 分析은 사실 이미 1930年 「케인즈」(J.M. Keynes)에 의하여 行하여진 바 있다. 「케인즈」는 物價는 生産要素(특히 勞動)에 대한 報酬의 率과 生産單位當 利潤率과의 合計와 같다고 보았다. (2) 前者, 즉 勞動에 대한 報酬의 上昇을 「케인즈」는 「所得인플레이」(income inflation), 그리고 後者, 즉 利潤率의 上昇을 「物品인플레이」(commodity inflation)라고 불렀다. 景氣變動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物品인플레이가 일어남으로써, 物價가 上昇하는 것이지만 第2段階에 있어서는 物品인플레이가 企業의 利潤을 增加시킴으로써 投資가 더욱 增加하여 生産要素의 價格을 增加시켜서 所得인플레이를 誘發한다. [10 p. 277] 만일 所得인플레이가 相當期間동안 進行하면 企業의 利潤率이 低下하여 投資가 減少하게 되는데, 이것은 物價를 下落시키는 대신, 雇傭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가지고 오게 된다. 結局, 總需要의 過多로 惹起되었던 인플레이는 끝내는 失業을 惹起시키게 되는데 元來 失業의 原因이었던 總需要의 過다가 크면 클수록 그 結果로 나타나는 失業도 많아지게 될 것이

(2) 「케인즈」는 그의 大著 『貨幣論』에서 物價에 관한 「基本方程式」에서 物價上昇의 要因을 다음과 같이 把握하고자 한 것이다. [10, p. 138]

$$\pi = W_1 + \frac{Q}{O}$$

여기서 π 는 物價水準(price level of output as a whole), W_1 은 勞動의 生産要素에 대한 報酬率(rate of earnings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Q 는 總利潤(total profit), O 는 總生産量(total output)을 표시한다.

다. 이것이 「케인즈」의 景氣變動論의 骨子이며 이 理論을 敷衍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本質이 解明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스태그플레이션의 遠因이 된 總需要의 過多現象이 持續된 理由는 무엇인가? 이것을 國內的 要因과 國際的 要因의 두가지로 나누어서 考察할 수 있다. 우선 國內的 要因은, 完全雇傭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總需要를 增加시켜야 한다는 매우 單純한 「케인즈」理論의 適用으로 因한 金融財政兩面에 있어서의 持續的인 膨脹을 들 수 있다. 또 50年代 後半期부터 높은 經濟成長率의 達成을 하나의 經濟政策의 目標로 삼아서 모든 나라가 競爭的으로 經濟成長을 追求하였고 이것이 金融 財政面에서 高壓的인 政策을 採擇하려 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膨脹政策의 持續은 당연히 언젠가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經路를 밟은 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惹起시키는 것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防止하려면 總需要의 抑制가 必要하였다. 그러나 「필립스」(A. W. Phillips)에 의한 「필립스」曲線의 發見은 不完全雇傭下에서의 物價上昇의 原因은 勞賃의 獨立的인 上昇에 있다는 見解를 뒷받침하게 되어 經濟成長을 무엇보다도 重要視하는 各國政府와 遠視的 視野를 잃은 經濟學者로 하여금 이른바 所得政策이라고 하는 一聯의 賃金物價統制政策을 取하게 만든 것이다.

60年代에 歐美各國이 거의 例外없이 採擇한 所得政策은 艱苦 恣意的인 統制以外에는 物價政策이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는 곧 다시 말하면 物價政策의 破産을 의미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어찌하여 政策의 破産이나 하던 經濟理論의 主流로 이루는 「新古典派綜合」(neo-classical synthesis)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失業과 인플레이의 景氣變動의 兩極을 除去하는 理論을 確立하였다고 自負하고 있었으며 完全雇傭 下에 있어서의 持續的이고 恒久的인 成長을 無難히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이와 같이 自信에 가득찬 理論들이 物價政策을 政府의 非公式價格統制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結局, 理論과 政策의 破産으로 볼 수 밖에 없다. 所得政策은 거의 모든 先進諸國에 의하여 採擇되었으나 거의 하나의 例外도 없이 失敗하고 말았다.

所得政策이 失敗한 裏面에는 現今의 인플레이는 非但 國內的인 要因에 그 根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實로 國際的 要因에 의하여 支撐되고 있다는 事情이 介在하고 있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今의 世界는 적어도 自由世界에 관한 限, 매우 密接히 連結되어 있다. GATT의 精神과 「케네디라운드」의 協約에 의하여 關稅가 매우 낮아졌으므로 非關稅障壁은 아직 殘存한다고 하더라도 國際貿易은 매우 自由로워졌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IMF의 規定에 의한 各國通貨間의 固定換率의 維持는 一國의 인플레이

나 디플레가 곧 다른 나라로 波及할 수 있게 하는 채널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國際通貨制度下에서 基軸通貨國인 美國은 이른바 「善意的 不注意」(benign neglect)로 50年代와 60年代를 통하여 거의 해마다 累積되던 國際收支의 赤字를 放置함으로써, 國際流動性은 크게 增加하였고 이것이 國際인플레를 激化시킨 것이다. 美國의 赤字에 對應하여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黒字가 나타나서 通貨量이 增加하였고 이 狀態가 계속됨으로써, 美國은 비교적 인플레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國際收支의 赤字가 계속되고 西歐諸國에서는 인플레와 아울러 國際收支의 黒字가 계속되는 등의 이른바 「基礎的 不均衡」상태가 世界的인 規模에서 持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對外的인 理由로, 즉 國際收支上의 理由로 인플레를 統制할 理由가 없었던 것과 같이 歐美諸國도 역시 國際收支上의 理由로 인플레를 抑制하고자 하는 理由는 없었던 것이다. 사실 美國을 除外한 餘他の 世界는 「존슨」(Harry G. Johnson)교수가 指摘한 바와 같이 國內的인 理由로 인플레를 抑制하고자 하면 할수록, 인플레를 抑制하는 데 있어서는 成功을 거두지 못하는 反面, 美國으로부터 나오는 弗貨를 더욱 더 많이 蓄積하게 된다는 難處한 處地에 놓이게 된 것이다. [9, 13 및 14章]

이와 같이 現今의 國際인플레는 各國의 成長政策의 追求와 아울러, 戰後의 國際經濟機構의 秩序를 背景으로 하는 美國의 國際收支의 赤字로 因한 國際流動性에 그 原因이 있다. 이러한 原因을 가진 國際인플레를 國內의 所得政策으로 抑制하려고 해도 도저히 成功하지 못할 것은 自明의 理致이다.

따라서 앞으로 國際인플레가 終熄되려면 (1) 自由經濟의 體質이 膨脹政策을 持續하지 않아도 完全雇傭을 보다 손쉽게 達成할 수 있든지, (2) 아니면 完全雇傭이나 成長에 대한 政策上의 執着이 緩和되든지, 그리고 (3) 美國이 自國의 國際收支의 赤字에 대한 「善良한 不注意」에서부터 脫皮하도록 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上記의 (1)과 (2)는 실로 先進資本主義의 體質과 經濟政策의 理念에 關聯되어 있는 問題이니만큼 이것을 變化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後述參照). (3)도 역시 國際金融制度의 關鍵을 쥐고 있는 美國이 現體制의 維持를 바라는 限, 美國으로 하여금 國際收支의 赤字에 대하여 보다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美國의 國際收支의 赤字로부터 惹起되는 인플레에 대하여 獨自的인 金融財政政策을 쓰자면 變動換率을 採擇하여야 한다. 現在 世界의 主要 貨幣는 모두 變動換率속에서 換率이 變動하고 있다. 그것은 結局, 固定換率이라는 非現實的인 制度가 事態의 進展에 밀려서 變動換率制로 된 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美國의 弗貨가 國際通貨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變動할 것 같지 않고, 國際通制貨度는

SDR라는 인플레이션의 國際流動性을 每年 創出하고 있다. 世界的 인플레이션 및 이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을 抑制하는 展望은 밝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19 pp. 338-52]

2. 經濟成長의 內容

「게인즈」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雇傭의 量이었다. 短期的 見地로 볼 때에 雇傭의 質보다도 雇傭의 量이 問題가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특히 30年代에 있어서와 같은 大恐慌에 處하여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에는 雇傭의 量과 아울러 雇傭의 質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21] 雇傭으로 因하여, 成長을 함으로써 供給되는 財貨나 用役이 혼란한 文化의 創造에 寄與하지 못하고 環境의 破壞와 公害를 낳는 다거나 頹廢와 墮落을 造成한다면 成長은 無意味하며 有害할 것이다.

1960年代의 高度成長過程에 있어서 成長의 質은 그 어떤 標準으로 보든지 最良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分明하다. 「로빈슨」女史는 戰後 先進國의 成長이 軍需産業의 擴大에 의하여 支撐되었다고 主張하였다. [22; 24, pp. 295-98] 또 50年代~60年代의 經濟成長이 極度に 達하는 大氣와 河川의 汚染, 環境의 破壞 등의 이른바 公害의 蔓延을 隨伴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常識화된 사실이다. 有害한 無機化學物質은 農産物과 鮮介類 등의 一次産品에 이르기까지 人體에 有害한 無機化學物質을 含有하게 되었다는 報道도 이제는 오히려 陳腐한 發見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高度成長過程에서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生活風潮는 急速히 頹廢의 一路를 걸었다는 느낌이 짙다. 美國人の 자랑이던 「거치른 個人主義」(rugged individualism)도, 그리고 西歐生活의 一角에 아직도 殘存하던 淸教徒的인 生活態度도 이제는 크게 退潮된 것 같다. 도대체 「퓨어리티즘」없이 어떻게 價値있는 文化가 創造되고 維持될 것인가? 西歐文明의 頹廢的 傾向은 歷史學者 「토인비」(A. J. Toynbee)로 하여금 「애덤 스미드」(Adam Smith)의 個人主義思想이 有害하다는 것과 東洋의인 生活態度를 憧憬하게 한 바 있다. 어쨌든, 高度成長의 그늘에서 公害와 頹廢가 成長되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環境의 破壞와 公害를 隨伴한 先進國의 高度成長은 石油를 비롯한 資源의 價格이 低廉하고 손쉽게 入手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可能한 것이었다. 資本主義의 偉大한 生産力은 先進資本主義諸國들이 世界到處에 散在하는 모든 資源이 손쉽게 動員될 수 있는 國際政治 및 軍事面에 있어서의 影響力 없이는 發揮될 수 없는 것이었다. 資本主義經濟는 한

면으로는 매우 生産力을 발휘하는 體制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資源을 無限히 많이 消耗하는 體制이기도 하다. 거의 無盡藏에 가까운 程度로 資源을 保有하고 있던 美國이 이제 大部分의 核心的 資源에 대하여 純輸入國이 되었다는 것은 資本主義의 資源消耗의 性格을 雄辯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弱點이 있다 하겠고 이 弱點은 1960年代에 있어서와 같은 高壓政策과 兩立하기 어렵다는 點에 先進國의 苦悶이 있다 하겠다.

先進國家들은 公害를 防止하고 資源의 限界에 直面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公害防止를 위하여 投資의 상당한 部分을 投下해야 할 것이고 資源의 制約은 總投資를 減少시킬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成長의 鈍化에 對備하여 바람직한 새로운 社會와 文化를 創造할 것인가가 資本主義經濟에 負荷된 하나의 큰 課題라 할 것이다.

3. 所得分配과 貧困

大體的으로 國民總所得이 增加하고 있는 過程에 있어서는 그것이 增加하고 있지 않을 때에 비하여 所得分配의 문제가 덜 深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理由は 總所得이 增加하고 있는 過程에 「로렌츠曲線」(Lorenz curve)이 對角線으로 接近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總所得의 增加過程에 社會의 深層에 있는 階層도 生活에 必需的으로 所要되는 財貨 및 用役을 入手하는 能力이 增加하는데 있다. 어떤 經濟를 莫論하고 各 經濟主體의 所得으로부터 生活必需品를 購得할 수 있는 家口數가 總家口數에 차지하는 比率이 커지면 커질수록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問題는 緩和될 것이다. 國民總生活의 增加 즉 經濟成長은 확실히 이 比率을 增加시키는 하나의 有力한 方法이 될 것이다.

自由企業를 原則으로 하는 社會의 經濟史를 概觀하면 階層別 所得分配——이에 대한 研究는 다른 問題에 대한 研究보다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經濟發展과 더불어 적어도 惡化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各國에 共通되는 經驗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階級の 兩極化와 大衆의 窮乏化를 展望한 「마르크스」(K. Marx)의 豫言과는 相反되는 現象으로 이 문제에 대한 資本主義經濟의 強韌性을 立證해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는 貧富의 隔差가 絶對的인 面에 있어서 그리 쉽게 解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1966年의 美國商務省에서 實施한 國勢調査에 의하면 高所得을 자랑하는 美國에 있어서조차도 貧困의 幅은 넓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全美國의 總家口中에서 年間所得 \$3,000 未滿인 家口가 차지하는 比重이 14%, \$7,000 未滿이 46%, \$9,000 未滿이 59%에 達하였다고 한다. 社會保障廳(Social Security Administra-

tion)의 定義에 의하면 1966년에 있어 都市의 4人家口의 所得이 \$3,150에 未達한다면 이 家口는 貧困線(poverty line) 以下에 있다고 하였다.[7, pp.217-19] 이 定義에 의한 「貧困線」이란, 長期間에 걸쳐서가 아니라 非常時동안에 겨우 家族들이 最少限의 所要榮養을 供給할 수 있을 정도의 金額을 말하며 1966년에는 美國全體에 이러한 貧困線 以下の 家口數가 거의 2,500萬에 達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富裕를 자랑하는 先進國에 있어서도 貧困의 문제가 大規模로 存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가 好調일 때에 있어서는 貧困의 問題는 表面化하지 않지만, 最近에 있어서와 같이 富의 再分配가 스테그플레이션에 의하여 社會의 深部に 있는 階層에게 더욱 不利하게 이루어질 때에 있어서는 所得不平等의 問題는 尖銳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 貧困의 문제를 解決해 나갈 것인가가 資本主義經濟의 가장 큰 課題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後進國의 問題⁽³⁾

大戰이후로 新生後進國은 例外없이 經濟發展을 追求해 왔다. 經濟發展을 追求하는데 있어서의 後進國의 政策은 工業化였고, 大部分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60年初半까지는 그 工業化 政策은 輸入代替産業育成이라는 形態를 取하였었다. 그러나 그 輸入代替産業은 大部分 先進國으로부터 導入된 施設과 原資材에 그 基盤을 둔 것이었으므로 매우 非效率의 인 것이 많았을 뿐 아니라, 國際收支의 逆調를 結果하였으므로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은 이른바 輸出代替産業(export substitute industries)의 育成으로 開發의 力點이 移行하였 다.

이 輸出産業의 育成은 60年代의 世界的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世界經濟의 環境속에 있어서는 비교적 妥當한 開發戰略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든 後進國이 다 이 戰略으로 開發에 成功을 거둘 수 있는 條件을 갖춘 것은 아니며, 또 설사 이 戰略으로 因하여 成功을 거둔 것처럼 보인 事例가 있다 하더라도 60年代의 特殊景氣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의 海外依存도가 지나치게 높은 經濟體質만이 두드러지고 있을 뿐, 이들의 前途는 매우 險難해 보인다.

60年代에 있어서의 많은 後進國의 開發戰略은 거의 無條件에 가까운 所得增大 極大화가

(3) 本項에 관해서는 이 「심포지움」에서 다른 報告가 있을 것이므로 本項에서는 他部門과의 調和를 위하여 필요한 限度內에서 簡略히 論하려고 한다.

그 核心을 이루었다. 사실 이 開發戰略은 많은 경우에 先進國에서 開發된 開發理論에 의하여 憑憑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後進國의 經濟事情은 先進國 못지 않게 뚜렷한 成長에의 限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大部分이며, 또 設使 高度成長政策을 採擇한다고 하더라도 先進國이 치르는 代價보다 더 많은 代價를 成長을 위하여 支拂해야 된다는 苦悶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後進諸國은 先進諸國以上으로 經濟發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自國의 開發戰略은 어떤 것이 妥當하는가에 관하여 새로운 省察이 필요하게 된 것 같다. 經濟學者 「엔케」(S. Enke)는 後進國에 대한 發展理論의 適用이 기대하는 成果를 보지 못하였다고 指摘하고 經濟發展論은 결국 「애담 스미드」以來로 이렇다 할 進歩가 없었다고 하여, 「애담 스미드」 당시의 옛 眞理가 再發見되고 있다고 하였다.[3] 그러나, 오늘날의 後進國은 「스미드」의 英國과는 모든 事情이 異異하다. 後進國의 經濟學者들이 오직 古典派, 新古典派, 新新古典派의 理論과 價値觀, 그리고 그 分析方法만으로 開發問題에 臨한다는 것은 그 適合性(relevance)을 喪失할 우려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經濟學의 反省

現代의 經濟學이라고 해도 그 理論的 系譜는 多様하며, 그 指向하는 바 理念 역시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現代經濟學의 主流는 「모빈슨」女史가 「新新古典派」(neo-neo classical school)이라고 부른 이른바 「新古典派綜合」(neo-classical synthesis)을 指向하는 學派라고 볼 수 있다.⁽⁴⁾ 本稿에서 批判하고자 하는 經濟理論은 주로 이 學派이며 用語의 便宜를 위하여 때로는 「近代經濟學」이라는 表現을 사용하고자 한다.

위에서 指摘한대로 世界經濟에 擡頭된 諸問題들의 解決策을 近代經濟理論이 쉽사리 發見하지 못하는 理由를 全的으로 그 埋論이 지니고 있는 弱點에 求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理論과는 關係없이 學者나 實務者가 問題의 所在를 認識하지 못하고 理論을 올바르게 驅使 適用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經濟理論의 基本的 假定과 理念은 上記한 經濟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 根本的으로 適當하지 못한 點도 있다고 思料되므로 以下에서 近代經濟學의 基本命題와 內容을 叙述하고 이들과 現實問題의 聯關關係를 分析하고자 한다.

(4) 「新古典派綜合」을 主張하는 代表的인 理論家는 「새뮤얼슨」(P. A. Samuelson) 교수로서, 이 學派는 新古典學派의 價格理論과 「케인즈」의 所得理論을 綜合하고자 試圖한다.

1. 個人主義와 自由競爭

近代經濟學에 있어서의 分析의 單位는 個人이다. [1, p.1] 近代經濟學에 있어서는 個人은 그가 어떤 社會階層에 屬해 있는가에 따라서 行動을 달리하고 있다고 假定되어 있지 않다. 人間은 地位의 高低와 身分의 貴賤을 莫論하고 完全히 다 똑 같은 行動을 하는 것으로 假定되고 있다. 또 언제,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個人은 다 똑같은 行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個人은 거의 無限에 가까운 欲望을 가지고 있어 항상 合理的으로 効用을 極大化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善」이기도 하다. 各個人은 各自의 主觀的 判斷으로 効用을 極大化하도록 자기의 行動을 選擇하는데, 各自의 主觀的 判斷은 서로 獨立의이고 相互關聯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暗黙裡에 假定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經濟理論이 個人主義의 價值觀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社會에 있어서는 個人의 判斷은 서로 關聯되어 있으며 만드시 獨立의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는 點이 近代經濟理論에서는 제대로 認定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巨大한 企業과 勞動組合, 政府機關 등이 莫強한 힘으로 經濟를 分割하 다시 피 하는 現代社會에서 個人이 自己의 効用을 發見하고 極大化할 能力과 機會가 剝奪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消費者는 主權者(consumer sovereignty)라고 하지만, 消費者의 選擇이 生産되는 製品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製品이 오히려 消費者의 嗜好를 左右하는 것이 現代社會이다. 「갈브레이스」(J. K. Galbraith)교수의 이른바 「近隣効果」(neighborhood effect)가 消費者理論에서는 잘 認定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近代經濟理論의 徹底한 個人中心의 分析方法과 個人主義的 價值觀은 現代社會의 가장 두드러진 一面을 捨象하는 것으로서 現代社會를 理解하는데 있어 經濟理論의 効用을 減殺하는 동시에 現代의 諸問題를 해결하는데 障礙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論理의 精密과 現實性的의 缺如

近代經濟學에 있어서는 모든 生産物과 生産要素는 市場을 통하여 去來되는데 市場은 需要와 供給이라는 相反되는 힘이 作用하여 均衡價格이 成立하며, 이 價格이 財貨와 生産要素의 機會費用을 反映하는 正當한 價格으로 分析되고 있다. 自由競爭市場에 있어서는 各生産品의 需給量과 그 生産物의 價格이 伸縮의으로 變動하여, 効率的으로 資源이 配分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近代經濟學에서 正當한 價格의 成立을 위하여 필요한 「均衡」이란 概念은 物理學으로부터 借用한 것으로서 近代經濟學의 分析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概念이다. 經濟理論의 모든 領域에 걸쳐, 例를 들어, 消費者理論, 企業理論, 生産理論, 分配理論, 國民所得理論, 國際經濟理論, 成長理論을 勿論하고 均衡이라는 概念이 항상 쓰여지고 있다. 이들 均衡은 항상 摩擦없이 그리고 順調롭게 達成되거나, 또 될 수 있는 것으로 想定되고 있다. 실지로는 經濟現象에 있어서는 「均衡」은 「로빈슨」女史가 指摘한 바와 같이(後述) 하나의 神話이며 實在하는 경우가 오히려 稀貴한데도 不拘하고 理論에 있어서는 이것이 항상 存在하거나 적어도 存在할 수 있는 것으로 想定되고 있다. 實在하지도 않는 것을 實在하는양 假定하고 論理의 整合성에 지나치게 置重하기 때문에 經濟學者들이 現實을 보고 진실로 社會를 理解하는 能力을 크게 喪失하고 있는 것이다.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表面으로는 現實世界를 說明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지로는 너무나 많은 物理學의 原則을 그대로 導入함으로써 現實社會를 度外視하고 있다. 極大化와 極小化, 均衡, 彈力性, 安定條件 등 모두 物理學의 思考가 그대로 導入되고 있는 것이다. 物理學의 概念은 物理學으로 하여금 모든 科學의 女王으로 만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精密科學(hard science)의 概念이 오직 演繹的으로 經濟科學에 導入되어서는 經濟科學을 오히려 非科學的으로 만들 憂慮가 있는 것이다.

經濟現象은 物理現象과 달라서 客觀的인 法則의 作用도 없지 않지만 그것과 아울러 오히려 人間의 意志, 人間의 心理가 크게 作用하는 人間의 生活現象이므로 物理學에서 導入된 概念을 分別없이 쓴다는 것은 無意味할 뿐 아니라 有害하다.

經濟學은 「케인즈」가 말한대로 하나의 「가장 우리의 口味에 맞는 道義科學의 一分野」(the most agreeable branch of moral science)로서 現實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動機와 行動, 및 그 結果 등을 現實性있게 把握할 수 있어야 한다. 例를 들어 「케인즈」의 巨視理論을 보면 30年代의 資本主義社會의 心理에 立脚한 經濟生活이 至極히 現實性있게 分析되고 있으며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物理的 理論을 그대로 援用한 痕跡은 없다. 그것이 「케인즈」의 經濟學으로 하여금 成功하게끔 만든 理由였다고 볼 수 있다.

近代經濟學에는 이와 같은 現實的 感覺이 稀薄하다. 거기에는 社會心理도 없고 人間의 意志도 없고 將來의 不確實性에 대한 疑懼도 없는 世界, 오직 消費者는 效用을 極大化하고 生産者는 利潤을 極大化할 때에 각각 均衡을 이룬다는, 神話에 가까운 物理學的 原理가 너무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經濟理論 특히 微視理論으로 하여금 人間의 經濟生活과는 距離가 먼 것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非但 微視理論뿐 아니라 巨視理論도 점차 「케인즈」의 經濟學이 「新古典派綜合」으로 變貌하여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

이 여기에 援用됨에 이르러, 元來「케인즈」의 經濟學의 現實性 側面이 크게 減殺되었다. 貨幣經濟는 古典學派의 世界와는 달리 不確實이 作用하는 經濟라는 것이 「케인즈」理論의 骨子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거의 完全히 捨象되고 IS, LM 曲線등을 통한 一般均衡理論이 導入되어 「케인즈」理論이 新古典派理論으로 「綜合」된 것이다. 이 兩理論은 사실 「綜合」될 수 없는 것임에도 不拘하고(後述), 이것을 綜合한다는 것은 「케인즈」의 理論의 基本的인 側面이 捨象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정도 「케인즈」가 되찾았던 現實性이 다시 없어지게 되었고, 新古典學派的인 分析力과 價値觀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新古典派綜合」은 綜合이 아니라 케인즈革命에 대한 新古典派의 反革命이다.

3. 新新古典派와 成長에 대한 過剩期待

60年代에 있어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의 經濟理論을 左右하던 經濟學者들이 그들의 理論에 대하여 갖고 있던 自信은 대단한 것이었다. 「新古典派綜合」의 經濟理論과 政策에 대한 自信의 程度는 「새뮤얼슨」교수의 「經濟原論」의 序文에 잘 나타나고 있다. 第3版의 序文에서 「새뮤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1]

나의 初版에서는 不況을 強調하였다. 第2版에서는 인플레이션을 強調하였다. 여기 第3版에서는 나는 모든 點에서 「效率의 成長과 安全性」에 그 強調點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再三再四 나는 내가 「壯大한 新古典派綜合」(grand neo-classical synthesis)라고 부르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이것은 (1) 現代의 所得決定의 有效한 核心部分(즉 케인즈理論——譯者註)과 (2) 古典的 經濟原理의 하나의 綜合이며, 그 基本的 敎理는 다음과 같다. 즉 所得分析의 道具에 의하여 貨幣 및 財政政策의 가장 重要한 問題를 解決하면 古典派의 眞理를 有效한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이 適合성을 回復할 것이다.

그리고 第6版에서는

財政金融政策을 適宜하게 補強함으로써 우리들의 混合企業制度는 불이나 슬럼프의 過剩을 避할 수가 있고 또 健全한 前進的 成長의 展望을 가질 수 있다. 이 基本的인 點을 理解한다면 小規模의 微視經濟學을 取扱한 옛 古典派의 原理로부터 그 適合성과 妥當性의 많은 것을 빼앗았던 道理도 이제는 그 效力을 喪失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所得決定의 近代分析을 더듬는다면, 基礎的인 古典派의 價格決定原理의 正當性도 眞實한 것으로 確認되는 것으로서 經濟學者는 이제는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 사이에 存在하던 커다란 龜裂이 메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똑 같은 思考를 「새뮤얼슨」은 「케인즈」革命 30年을 回顧하면서 다음과 같이 披瀝한 바 있다. [12, p. 341]

新古典派綜合의 하나의 結果는 現代社會는 擴張의 貨幣政策을 採擇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需要牽引型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充分히 緊縮의 財政政策을 執行함으로써 資本의 深化를 促進하며, 이것으로부터 完全雇傭點에 있어서의 成長率을 提高한다는 樂觀的인 見解이다. 要컨대 이들 施策을 結合하면, 完全雇傭所得中의 消費部分을 引下하면서 完全雇傭自體를 攪亂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케인즈」理論에 따라서 財政金融政策의 政策混合(policy mix)을 통하여 完全雇傭과 高度成長을 이룩하면, 經濟는 新古典派에서 말하는 市場原理에 의한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이 이룩된다는 것이다.

新古典派綜合의 主張에는 理論的인 難點이 많다. 첫째, 新古典派의 世界와 「케인즈」의 世界는 完全히 달라서 綜合될 수 없다. 前者는 經濟主體가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行動하는 觀念的 實物經濟의 理論임에 비하여 後者는 不確實性속에서 行動하는 貨幣經濟의 理論이다. 觀念的 實物經濟의 理論이 現實適合性이 적기 때문에 「케인즈」革命이 일어난 것이다. 兩者가 어떻게 結合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 前述한 바와같이 「케인즈」에 와어서간이 失業이 있을 때에는 雇傭의 量이 問題이지만, 完全雇傭이 達成되면 雇傭의 質이 문제가 된다. 新古典派의 理論과 「케인즈」理論을 綜合해보아도 雇傭의 質과 內容에 관한 理論은 없고, 다만, 完全雇傭만 이룩되면 新古典學派의 理論에 있어서처럼, 市場機構가 雇傭의 內容을 健全하고 效率的으로 만들 것이라는 漠然한 믿음은 臆보일 뿐이다.

新古典派綜合은 이와 같이 完全雇傭과 成長만 있으면 經濟는 效率的으로 된다는 期待와 自信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로빈슨」女史가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革命以前의 正統經濟學은 均衡의 神話에 의하여 支配된 것이었는데 비하여 戰後에는 成長의 神話가 經濟學을 支配하게 되었다. 過去에는 完全雇傭下에서의 均衡이 正常的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비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完全雇傭下에 있어서의 恒久的인 成長이 正常的인 것으로 생각됨에 이르렀다. 새로운 神話를 支撐하기 위한 經濟分析은 混亂의 極에 達하고 있다.』 [23, p. 1]

現實世界에서 遊離된 物理的 論理의 踏襲과 雇傭의 質에 대한 省察의 缺如는 결국 經濟成長에 대한 지나친 自信과 期待를 낳았고 이것이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의 遠因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成長에 대한 期待와 自信이 披瀝되

고 있는 동안에도 成長政策의 限界는 이미 所得政策의 失敗로 因하여 뚜렷이 立證되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經濟成長의 質的 問題중에서 公害와 頹廢에 관해서는 經濟學者들의 警鍾——비록 警鍾치고는 너무나 微弱한 것이었지만——이 울려진 바 있다. 例를 들어, 「로빈슨」女史, 「미션」(E.J. Mishan)교수[17], 「갈브레이스」(J.K. Galbraith)교수[4] 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資源의 過多消耗에 대하여는 經濟學者들은 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警告도 못한채, 石油波動을 맞은 것 같다. 물론 「로마 클럽」의 「成長의 限界」[15]에 있어서와 같이 資源工學的立場에서 資源의 枯竭에 대한 警告는 있었으나, 그것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오히려 지나친 悲觀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4. 制度와 歷史

經濟學은 社會에 있어서의 여러가지의 制度(法律이나 行政制度, 生活慣習과 經濟組織 등의 social institution)를 度外視할 수가 없다. 이른바 經濟分析이 行하여지기 前에 이런 制度에 대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經濟生活은 바로 이들 制度를 만들어냈고, 또 이 制度속에서 營爲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制度에 대한 考慮없이 經濟學을 論한다는 것은 마치 眞空속에서 生物의 生活을 論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經濟發展에 있어 가장 重要한 要素인 技術——이것은 곧 人間과 自然의 關係이다——의 發展의 類型도 곧 社會制度에 의하여 甚大한 影響을 받는다. 또 똑 같은 技術로 運營되는 生産過程도 生産制度如何에 따라서 生産의 크기도 다르고 分配도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經濟分析에 있어 어찌면 가장 不可缺한 要素가 바로 그 分析의 對象이 되고 있는 制度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22, pp. 54; 18]

이와 같은 社會의 制度는 결코 一朝一夕에 形成된 것도 아니고 唯獨 經濟的인 理由만으로 因하여 發展되어 온 것도 아니다. 人間生活의 모든 側面이 먼 過去로부터 이들 制度에 凝結되어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制度」는 歷史的 產物이다. 따라서 우리의 分析對象이 되어 있는 經濟社會도 歷史的 產物이니만큼, 經濟社會에 대한 理解는 歷史에 대한 眼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社會制度, 技術의 發展, 經濟生活의 歷史的 要素 등은 이와 같은 重要性을 가지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近代經濟學은 이것을 애써 外面하고 있다. 이들 問題만 나오면 그것은 「經濟外的」(non-economic)事項으로 分析對象에서 除外된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데이터」(data)로 取扱되는 것이다. 오히려 社會制度를 감안하는 經濟學者가 있다면 그에게는 理

論이 없다고 取扱된다. 經濟分析에 있어 制度의 重要性을 力說하는 「뤼르달」은 「社會學者」로 흔히 看做되고 美國資本主義의 內容에 關하여 獨特한 分析을 行한 「갈브레이스」는 文才가 있는 탓으로 「저널리스트」의 評價를 받고 있으며, 資本主義의 發展과 그 將來에 대하여 「마르크스」이후의 第1人者라고 할 수 있는 「슈페터」(J.A. Schumpeter)의 思想도 經濟學主流에 남긴 理論의 자취는 이제 거의 湮滅된 느낌이 있다. 經濟學徒가 制度나 歷史와 關聯시켜서 經濟를 論하는 刹那에 그는 하나의 크랭크(crank)取扱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심지어 經濟成長이나 發展을 論할 때에는 制度나 歷史的 視野는 捨象된채 흔히 몇개의 經濟變數만으로 模型이 構成된다. 이것은 物理學이나 工學이지 經濟學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이들의 模型은 學者의 論理의 一貫性을 推尋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枯淡한 論理는 經濟發展이나 成長의 過程을 理解하는 데 있어서는 別로 寄與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經濟學者들은 마땅히 經濟學의 科學性에 대한 強迫觀念으로부터 蟬脫하여 보다 人間關係의 學問으로 그 關心과 方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例를 들 어, 考察하고자 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階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 고 있는가에 關한 力學關係,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行使되고 있는지, 이것이 社會의 다른 階層에 대하여 어떤 影響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하여 應分의 省察이 있어야 할 것 이다.

5. 所得分配理論의 限界와 現狀維持의 性向

이와 같이 社會制度和 慣習이 無視되고 있는 過程에서 社會階層間에 이루어지는 所得 分配의 理論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新古典學派의 所得分配理論은 生産要素에 關한 價格理論에 不過하다. 여기에서는 生産要素의 所有者의 所得은 그 生産要素의 限界生産性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說明되고 있다.

所得分配理論을 圍繞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新케인즈派」(neo-keynesians)와 「新古典學派」사이의 論爭의 內容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詳論할 수는 없다. 新古典學派가 生産 要素 특히 勞動의 所得은 勞動의 限界生産性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는 데 비하여 新케인 즈派에 있어서는 勞動에 대하여 分配되는 所得은 勞動者階級 對 資本家階級 사이에 存在하 는 交渉力의 強弱에 의하여 크게 影響받으며, 賃金의 水準은 오랫동안 걸쳐서 形成된 歷史的 產物이라고 한 것은 限界生産力說보다는 오히려 說得力이 있는 理論이 아닐까 생 각된다. 新古典學派의 生産要素에 대한 分配理論은 이른바 「資本의 展性」(malleable capi- tal)에 대한 假定에 立脚하고 있다. 이 資本理論에 의하면 資本이 지금까지 A라는 用途

에 사용되고 있던 것이 B라는 용도로轉換利用되는데 있어 하등의 私的 내지 社會的 費用을 끼집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資本은 마치 엇가락처럼 伸縮自在로 아무런 摩擦없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現實의으로는 이와 같은 資本의 屐性은 도저히 存在할 수가 없다. 모든 生産活動은 時間的 經過를 必要로 하며 모든 生産要素는 그것이 使用될 一用途에 固定되어 있는 面이 強한데도 不拘하고 이런 點이 無視되고 非摩擦性的 前提下에서 理論體系가 構築되었다는 것은 심히 現實性을 缺如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現實社會에 基盤을 두지 못하고 있는 네다가 社會的 歷史的 視野를 封鎖하는 理論的特性으로 인하여 經濟學者들의 分析의 領域은 매우 넓어지게 된 것 같으나, 大體的으로 社會의 將來를 透視하는 遠視의 眼目を 缺한 것이 많고 分析의 內容이나 그 結果로 얻는 結論도 社會制度의 現狀維持를 위한 것이 많다. 現狀維持를 위한다는 것은 그 理論이 반드시 現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問題의 核心과는 無關한 理論的인 문제만을 다룬다든지 또는 現實을 糊塗하는 方法을 講究하는, 말하자면 「섭업디마이제이션」(sub-optimization)의 方案을 講究하기 위하여 精巧하지만 空虛한 理論을 편다는 것도 充分히 現狀維持的인 側面이 있다는 뜻이다.

IV. 結 語

以上 經濟學의 主流가 信奉하는 理論的 基盤이 오늘날 提起된 여러가지의 難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 效果의이 못되는 몇가지 理由를 論하였다. 이들 論議는 결코 經濟學의 主流가 갖춘 「패러다임」(paradigm)이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普遍妥當한 原理를 追求하는데 있어 큰 進展을 보인 部分이 많았다는 것을 否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以上の 觀察은 매우 素朴한 것에 不過하지만, 그것은 近代經濟學에 있어서와 같이 物理學이나 數學의 方法을 그대로 導入함으로써, 어떤 壯大한 普遍妥當性이 있는 經濟學의 眞理를 發見하고자 하는 試圖가 成功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에 立脚한 것임이 認定되어도 좋다. 經濟學은 오직 自然科學的인 論理만을 崇尚하는 것을 止揚하고 보다 現實的으로 實在하는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經濟的 側面을 理解하여야 하는 任務에 忠實하여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1] A. A. Alchian and W. R. Allen, *University Economic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64
- [2]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London: Macmillan, 1972
- [3] S. Enke, "Economists and Development: Rediscovering Old Truth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VII, December 1969, pp. 1125-140
- [4] J. 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Houghton Mifflin, 1958
- [5] G. C. Harcourt,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6] F. A. Hayek,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55
- [7] E. K. Hunt and H. J. Sherman, *Economics*,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8] E. K. Hunt and J. G. Schwartz eds.,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2
- [9] H. G. Johnson, *Further Essays in Monetary Econom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2.
- [10] J.M. Keynes, *A Treatise on Money*, London: Macmillan, 1930
- [11] T.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62
- [12] R. Lekachman ed., *Keynes' General Theory: Reports of Three Decad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 [13]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Oxford U. Press, 1968
- [14] _____, "Keynes and the Keynesians: A Suggested Interpre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2, pp. 401-10
- [15] D. 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New York: Universe Books, 1972
- [16] John R. Meyer, "The New Realities of Business Cycl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53rd Annual Report*, September 1973
- [17] E. J. Mishan, *The Cost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Praeger, 1967
- [18] G. Myrdal, "Response to Introduction," (Luncheon in Honor of Gunnar and Alva Myrd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XII, May 1972, pp. 456-62
- [19] K. R.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 [20] J. Robinso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Macmillan, 1956
- [21] _____,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Macmillan, 1963
- [22] _____,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XII, No. 2, May 1972
- [23] _____, *Economic Heresies*, Basic Books, 1971. (宇沢弘文譯, 『異端の経済學』, 日本經濟新聞社, 1973)
- [24] _____,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London: McGraw-Hill, 1973
- [25] P. A. Samuelson,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48, 3rd ed., 1961; 8th ed., 1970

- [26] G. P. Shultz and R. Z. Aliber, *Guidelines, Informal Controls and the Market Place*, Chicago, 1966
- [27] G. J. Stigler, *Essay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Chicago, 1965
- [28] 宇澤弘文, 竹内啓, 伊藤誠, 石井寛治, 『経済學と現代』, 東京大學出版會, 1974
- [29] 松浦保, 『現代經濟學の潮流』, 日本經濟新聞社, 1974
- [30] 稻田獻一, 岡本哲治, 早坂忠編, 『近代經濟學再考』, 東京, 有斐閣, 1974
- [31] 熊谷尙夫, “資本主義體制の現状を診断する,” 『中央公論』, 1975年 1月號, pp. 82-99